

2025년 국제 추수 감사절 섬김 특별 집회 표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 있는 별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최신의, 즉각적인, 살아 있는 이상이다.

실지적인 임마누엘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실재의 영이시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즉 날마다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매 순간 함께 있다.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가장 분명한 계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다.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유일한 쟁점은 권위에 관한 것이다.

2025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국제 추수 감사절 섞임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마태복음에 계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메시지 1

살아 있는 별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최신의, 즉각적인, 살아 있는 이상

성경: 마 2:1-12, 민 24:17, 창 1:14-19, 단 12:3,
계 1:16, 20, 2:1, 28, 3:1, 22:16, 벧후 1:19, 창 22:17, 유 12-13

- I.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후,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 2:2)라고 말했다. 이것은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오”라고 한 민수기 24장 17절의 성취였다. 이 별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A. 박사들은 “우리가 ‘한’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라고 하거나 “우리가 ‘그’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라고 말했다. 여기서 별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이다.
 - B.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말한 별은 이 현자들에게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 있었고 그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 알았지만(마 2:4-6),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별을 보았다.
 - C.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에 관한 문자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미 5:2), 동방에서 온 이 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 있는 이상을 받았다. 결국 이 별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마 2:1-12).
 - D. 그리스도는 참된 해이지만(말 4:2), 엄격히 말해서 그분은 밤의 시대에는 해로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별로서 빛을 비추신다(계 2:28). 별은 밤에 빛나지만, 이것은 낮이 오고 있음을 가리킨다(롬 13:11-14).
 - E.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오셨을 때에는 별로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지만,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그분의 오심을 위해 깨어 있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섯별이실 것이다(계 2:28, 22:16). 나중에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로서 나타나실 것이다(말 4:2, 비교 마 13:43).
- II.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살아 있는 문제임을 계시한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단지 성경의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 A. 별은 거룩한 땅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유대인의 종교의 중심지로부터,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다. 그러한 곳들이 아닌 이 교도의 땅에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보여 주는 별이 있었다.
 - B. 단지 우리 손에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하는 미가서 5장 2절을 읽는 것만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별을 놓칠 수 있다.
 - C. 별은 성경에 대한 낡고 죽은 교리적인 지식 곧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계시, 살아 있는 이상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상, 최신의 즉각적인 이상, 살아 있는 이상, 사람의 관념으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이상이다.

- D. 비록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 거리와 그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즉각적인, 최선의, 살아 있는 별이 필요하다.
- E. 그 박사들은 살아 있는 이상을 받았으나, 그들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 잘못 이끌려 왕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들이 잘못 갔기 때문에 많은 어린 남자아이들이 죽게 되었다 — 마 2:16.
- F.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물었을 때, 성경은 “헤롯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러하였다.”라고 말해 준다 — 마 2:3.
1. 그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했지만, 반대로 당황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들이 진심으로 구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 비교 잠 4:23.
 2. 만일 주님을 믿는 누군가가 사랑이신 주님에 의해 그의 내적 감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 딤후 4:8, 막 12:30, 고전 2:9.
 3.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거나 휴거되기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야 한다 — 딤후 4:8, 딤후 2:13, 계 2:28, 22:20, 마 24:40-44, 25:8-13.
- G.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잡힌 후(마 2:4-6)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때(8-9절),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마 2:10).
1.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잡혀 올바른 길로 돌아왔을 때에 그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다. 살아 있는 이상은 항상 성경 말씀과 함께한다.
 2.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올법을 가르치는 이들이었고(말 2:7), 율법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아는 이들이었다(스 7:6).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마 2:5-6),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는 달리 그들은 이상을 보지 못했으며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도 없었다.
 3.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일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주님을 찾고 따르는 신약의 길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감추어진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다 — 요 5:39-40, 사 45:15, 출 33:11, 14, 비교 고후 5:16.
 4. 성경 지식을 쌓기는 쉽지만, 우리가 살아 있는 안내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하나여야 한다 — 마 2:10-14.
 5.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께 경배했다. 그런 후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마 2:12).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결코 이전과 같은 길, 곧 그리스도를 떠난 종교의 길을 가지 않고 항상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Ⅲ.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이들은 빛나는 살아 있는 별들이다. 이들은 빛나는 살아 있는 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복사판이 된다 — 단 12:3, 비교 창 22:17.

- A. 살아 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늘에 속한, 살아 있는, 최선의, 즉각적인 이상을 따른다 — 행 26:16-18, 골 1:17하, 18하.
- B. 살아 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이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될 것이다 — 민 24:9, 창 12:2-3, 22:17.
- C. 살아 있는 별들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 결과 셋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매일 떠오르신다. 만일 우리가 성경

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주님께서 섯별로서 실지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의 변질의 어둠을 비추실 것이다 — 벧후 1:19, 요 6:63, 계 2:28, 22:16, 딤후 4:8.

1. 섯별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이른 아침이 주님을 만나기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성경과 함께 사역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주님께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 아 7:12, 시 5:1-3, 57:8-9, 59:16-17, 63:1-8, 90:14, 92:1-2, 108:2-3, 143:8, 출 16:21.
 2.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분 자신을 섯별로 은밀히 주심으로 써, 떠나신 지 오랜 후에 다시 오실 때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의 신선함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 살전 5:6, 계 2:28, 3:2-3, 16:15.
- D. 살아 있는 별들은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을 누리고 이 영으로 충만하다.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들을 생생히 살아 있게 하시고 강렬하게 빛나게 하신다 — 계 3:1, 4:5, 5:6.
- E. 살아 있는 별들은 교회들의 전달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달자이자 하나님에게서 온 신선한 메시지가인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신선하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분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 계 1:16, 20, 2:1, 말 3:1-3.
- F. 살아 있는 별들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마음에 큰 성찰’을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서 ‘자기들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원수에 맞서 싸우는 ‘별들’과 같고, 그 결과 ‘힘 있게 돌는 해’와 같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 사 5:15-16, 20, 31, 단 11:32, 마 13:43.
- G. 살아 있는 별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어둠 속에 거니는 동안에도 빛이 있는 이들이다 — 사 50:10-11, 시 139:7-12, 23-24.
1. 자신을 위해 빛을 만들고 하나님의 빛 대신 자신이 만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이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 사 50:11.
 2.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서 행하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 만든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와서 여호와와 빛 안에서 행하자.” — 사 2:5.
- H. 살아 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전진된 창조가 이루어진 넷째 날에 창공에 두어진 별들로 예표되는데, 이 넷째 날의 별들은 빛을 비춤으로 다스린다. 빛 비춤이 있는 곳에 생명의 성장을 위한 다스림이 있다 — 창 1:14-19.
1. 변형의 산에서 주 예수님께서 밝게 빛나신 것은 왕국이 능력으로 임한 것이었다. 이러한 빛남은 사실상 삼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임재이다 — 마 17:1-8, 막 9:1-8.
 2. 모든 축복과 누림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자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님의 빛남이자,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빛 비추심으로 확산되신 것이다.
 3. 왕국은 주 예수님의 실재의 빛남이다. 그분께서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그러한 비춤 아래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 I. 부정적인 방면에서 어떤 이들은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다 — 유 12-13.
1.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라는 은유는, 변덕스러운 교사들 즉 변절자들이 하늘에 속한 계시로 말미암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견고히 머무르지 않고,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2. 오늘날 변덕스러운 변절자들은 떠돌아다니는 별들이지만, 장래에는 그들을 위해 영원토록 마련되어 있는 캄캄한 어둠에 갇히게 될 것이다.

3. 누구든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절차라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현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에 부합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한 교회들의 섞임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별이다. 참된 별들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게 하는 이들, 곧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빗나가게 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이다.
 4. 오늘날 살아 있는 별이신 주님과 살아 있는 별들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지적인 표현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있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와 함께 있다(계 1:11, 20).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는 몇몇 살아 있는 별들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교통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 J.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올바른 길에 항상 지켜지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되게 하셔서, 살아 있는 별을 따라 그리스도를 찾고 새롭게 계속 발견하여 살아 있는 별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 비교 엠 5:8-9, 렘 15:16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창 12:3상
“그대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 그대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민 24:9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1권, 봉사자들과의 교통, 12장, 299쪽:

주님께서 보실 때 집회를 비평하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는 누구냐? 누가 너에게 나의 교회의 집회에 대한 표준을 만들 권리를 주었느냐?” 집회를 비평하는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집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자.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나는 그 집회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감히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분열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집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주님의 자비로운 빛 비춤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스러운 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97-98쪽:

1940년대 초 상하이에서 있었던 어떤 기도 집회에서 발생한 사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시는 바대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그 집회에서 교회의 낮은 상태로 괴로워하던 체험이 있는 어떤 동역자 자매는 교회를 위해 주님께 부르짖었다. 기도를 할 때 그녀는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상태가 가련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기도가 끝났을 때, 니 형제님은 주님께 찬양을 발했고 교회는 결코 약하거나 낮지 않고 항상 높은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렸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니 형제님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발람의 예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왔다.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도록 발라에게 고용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대신 발람은 그들을 축복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면서 발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네.”(민 23:21) 더 나아가 민수기 24장 5절에서 발람은 이렇게 말했다. “야곱이여, 그대의 천막이, / 이스라엘이여, 그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수려한지!” 이 절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 대신에 그분은 오직 선함과 공평함과 아름다움만을 보신다. 오늘날 교회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교회를 낮고 죽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수록 여러분은 더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교회생활로 인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에 관해 좋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자신을 두게 될 것이다. 나는 교회생활 안에 있어 온 이래로, 교회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반대로 교회를 가련하며 낮고 죽어 있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었다. 교회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며,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했던 이들은 축복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의 체험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간증이다.

때때로 내가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신다. 즉시 나는 주님께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교회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나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더 말할수록, 나는 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된다.

교회에 관하여 누구의 말이 옳은가? 여러분의 말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가? 영원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판명될 것이다. 이는 교회가 영원 안에서 놀랍고 영광스러우며 뛰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대한 대적의 모든 비난은 거짓말이다. 교회를 가련하거나 죽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적인 거짓말을 표명하는 것이다. 교회의 외적인 상황은 거짓이다. 교회가 냉랭하고 죽어 있으며 낮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교회는 높여진 것이며, 매우 생생한 것이다. 나는 발람의 예언에 관한 니 형제님의 강한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해마지 않는다. 그 말씀은 교회의 현 상태에 관한 나의 관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나는 전혀 다른 빛 안에서 교회를 보게 되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보다 더 깊이 보지 말라. 민수기에 있는 발람의 말에 의하면, 주님은 야곱에게 있는 죄악을 보지 않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통찰력이 있단 말인가? 성경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고 선포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을 보라고 주장한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해 믿겠는가? 주님의 시야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시야인가?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함께 선다면, 여러분은 축복에서 저주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심하기를 바란다.

메시지 2
의사와 신랑이신 그리스도

성경: 마 9:10-13, 15, 계 19:7-9

- I.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종교와 대립되시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이 종교 밖에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 A.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스도를 발견함, 그리스도를 천거함, 그리스도를 따름 등은 모두 종교 밖에 있었다 — 마 1:18-23, 2:1-12, 3:1-12, 4:12-22.
 - B. 종교 안에서 무언가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려는 생각은 모두 마귀의 유혹이다 — 마 4:5-7.
 - C. 의사와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종교와 대립되신다 — 마 9:12, 15.
 - D. 주 예수님은 종교적인 전통을 주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내적인 실재를 주의하신다 — 마 15:1-20.
- II.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A. 예수님은 왕국을 위하여 그분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로서 사역하셨다.
 - B.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은 의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 C.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서 사역하러 오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하늘의 새로운 시민들로 재조성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 타락한 세상에 세우시려는 것이었다.
 - D.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 마 9:13.
 - 1.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병, 곧 죄의 병을 치료하신다.
 - 2. 죄와 죽음 사이에는 온갖 종류의 병과 질병과 질환이 있다.
 - 3.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각 방면에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 4. 죄인들인 우리는 완전히 병들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자 의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
 - 5. 우리의 의사이신 주님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주로 우리의 영과 혼을 치료하신다.
 - 6. 주님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실 수도 있고 치료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의 각 부분은 항상 치료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
 - 7. 우리의 의사이신 주님의 치료는 주로 신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 E. 바울이 후기 사역에서 가진 체험은 우리에게 믿는 이들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움을 준다.
 - 1. 디모데후서 4장 20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 두었습니다.”라고 말한다.
 - 2.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병 고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를 병든 상태로 두었다.
 - 3. 바울은 또한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어(행 19:11-12)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쳐 주지 않고 오히려 자연치료법으로 고치라고 했다(딤후 5:23).
 - 4.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했고, 드로비모는 밀레도에 남겨 두었다.
 - 5.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을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돌보았다.

6.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돌본 이유는 고난의 시기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내적인 생명의 훈련 아래 있었을 뿐, 외적인 은사의 능력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전자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에 속한 것이고, 후자는 능력 곧 기적적인 능력 안에 있는 은사에 속한 것이다.
 8. 바울의 체험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치료가 대부분 영과 혼을 위한 것임을 깨닫도록 도움을 준다.
 9.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 F. 우리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권위를 갖고 계신다.
1. 그분의 치료는 단지 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권위의 문제이다.
 2.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를 직접 만지실 필요가 없다.
 3. 그분은 단지 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 그분의 권위는 그분의 말씀과 함께 와서 우리를 치료한다 — 마 8:8.
 4. 우리의 의사이신 분은 그분의 권위로 우리를 치료하신다.

Ⅲ.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계시되신다 — 마 9:15, 계 19:7-9.

- A. 마태복음 25장 1절은 신랑이신 주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더 전진된 말씀이다.
1. 이 절은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곧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분으로서 다시 오실 것임을 계시한다.
 2.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체현되신 하나님으로서 신부를 얻으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3.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분은 신랑의 신분이다.
 4. 신랑이신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분이시다.
 5. 우리는 생명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귀히 여겨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생생한 누림을 얻기 위해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귀히 여겨야 한다.
- B.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밝혀 준다.
1. 이 절들은 주 예수님께서 어린양으로서 신랑이심을 계시한다.
 2. 그리스도는 어린양과 신랑 모두로 계시되신다.
 3.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러 오신 어린양으로 계시되실 뿐 아니라, 신부를 얻기 위해 오시는 신랑으로 계시되신다.
 4. 어린양은 구속을 위해 있고, 신랑은 결혼을 위해 있다.
 5. 구속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고, 결혼은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를 취하실 때 있을 것이다.
 6.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결혼식을 하셔야 한다. 우리의 위치는 신부의 위치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위치는 신랑의 위치이다.
 7. 우리는 그분을 만날 신부가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준비되고 있으며, 그분은 셋째 하늘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날 신랑으로 오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
 8. 그분은 신랑으로서 오고 계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가고 있다 — 마 25:1.

메시지 3

하나님께서 주신 왕-구주의 이름인 예수와
사람이 부른 왕-구주의 이름인 임마누엘

성경: 마 1:21, 23, 18:20, 28:20

I.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마 1:21.

- A. ‘예수’는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음역으로서, ‘여호와 구원자’, 혹은 ‘여호와와의 구원’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이시다 — 롬 10:12-13, 5:10, 비교 빌 1:19.
- B.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포함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나는 -이다’이다.”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 곧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심을 가리킨다 — 출 3:14, 계 1:4.
 - 1. 여호와와는 유일하게 ‘-이다’이신 분이시며,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께서 ‘-이다’이시고 자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분은 모든 것에서 유일하시고 특별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 히 11:6.
 - 2. ‘나는 -이다’로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곧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재이시자 그분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실재이시다 — 요 6:35, 8:12, 10:14, 11:25, 14:6.
 - 3. 우리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명된 백지 수표가 있고, 무엇이 필요한든 거기에 적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빛, 생명, 능력, 지혜, 거룩함, 의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발견된다.
- C.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수아, 곧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안식이란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시는 그분 자신이다 — 히 4:8, 마 11:28-29.
- D. 주님의 이름 곧 그분의 인격은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이다 — 아 1:3, 출 30:23-30, 빌 1:19.
- E.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 빌 2:9-10.
 - 1.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안으로 믿어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 요 1:12.
 - 2.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안으로 침례 받기 위한 것이다 — 행 8:16, 19:5.
 - 3.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 행 4:12.
 - 4.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치료받기 위한 것이다 — 행 3:6, 4:10.
 - 5.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이다 — 고전 6:11.
 - 6.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기 위한 것이다 — 롬 10:13, 고전 1:2, 행 9:14, 창 4:26.
 - 7. 그 영은 우리가 숨 쉬기 위한 하늘에 속한 공기이시다. 우리는 우리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영을 들이쉬어 그 영을 받아들인다 — 요 20:22, 갈 3:2, 살전 5:17, 애 3:55-56, 영한 동번 찬송가 255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10장).
- F.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구원받기 위해 — 롬 10:13.
 - 2.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아픔에서 구출되기 위해 — 시 18:6, 118:5, 86:7, 50:15, 81:7, 116:3-4.
 - 3. 주님의 자애, 주님의 공훈에 참여하기 위해 — 시 86:5.
 - 4.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 — 시 116:2, 4, 13, 17.
 - 5. 그 영을 받기 위해 — 행 2:17, 21.
 - 6. 영적인 물을 마시고 영적인 음식을 먹어 만족하기 위해 — 사 55:1-2, 6.
 - 7. 주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 — 롬 10:12, 고전 12:3하, 신 4:7, 시 145:18.

8. 스스로 분발하기 위해 — 사 64:7.
 9.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 요 14:13-14, 15:16, 16:24.
 10.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안으로 모이기 위한 것이다 — 마 18:20.
 11.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 — 행 16:18.
 12.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위한 것이다 — 행 9:27.
- G.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한다.
1.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공격한다 — 비교 행 26:9.
 2.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공격하고 믿는 이들이 이 이름으로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 — 행 4:17-18, 5:40.
 3. 사도들은 박해받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 — 행 5:41, 15:26.
- H. 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의 이기는 이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칭찬하셨다 — 계 3:8.
1. 회복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모든 이름을 버림으로 절대적으로 주님께 속한다.
 2.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다. 그리스도와 약혼한 순수한 처녀(고후 11:2)인 교회는 자기 남편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가져서는 안 된다.

II.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 마 1:23.

- A.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구주의 이름이지만, 임마누엘은 사람이 부른 왕-구주의 이름이다 — 마 1:23.
- B.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곧 육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 마 1:21-23.
- C. 임마누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 — 빌 1:19.
1. 그분은 먼저 우리의 구주이시고(눅 2:11), 그다음에 구속자이시며(요 1:29, 롬 3:24), 그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고전 15:45하), 그다음에는 모든 것을 포함한 내주하시는 영이시다(요 14:16-20, 롬 8:9-11).
 2. 사실상 신약 전체의 내용은 임마누엘이고(마 1:23, 18:20, 28:20, 계 21:3),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이 위대한 임마누엘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고전 12:12, 골 3:10-11).
- D. 실지적인 임마누엘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실재의 영이시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즉 날마다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매 순간 함께 있다 — 요 1:14, 14:16-20, 고전 15:45하, 딤후 4:22.
1. 그분은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마 18:20.
 2.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마 28:20.
 3.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딤후 4:22.
 - a. 오늘날 우리의 영은 임마누엘의 땅이다 — 사 8:7-8.
 - b.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원수는 결코 임마누엘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 — 사 8:10, 비교 요일 5:4, 요 3:6.
 4.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삼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 마 18:20, 28:20, 시 119:30, 행 6:4.
 5.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영을 통해 은혜와 평안을 누린다 — 갈 6:18, 행 9:31.

6. 그 영께서 인도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이 곧 그분의 임재이다 — 롬 8:14, 16.
 7.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영을 통해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누린다 — 고후 13:14.
- E.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임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임재는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다 — 갈 5:25.
1.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우리가 여전히 살지만 우리 스스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한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에 분배하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완성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분명히 내적인 것이다 — 갈 2:20.
 2. 임마누엘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기관으로서 그분과 한 인격이 되어 그분과 함께 산다. 우리의 승리는 임마누엘, 곧 예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
 3.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사물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예지와 내적 인식이 있게 된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 고후 2:10, 4:6-7, 갈 5:25, 창 5:22-24, 히 11:5-6.
- F. 우리가 좋은 땅의 실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려면, 반드시 주님의 임재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한다. 주님은 모세에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출 33:14)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길, 곧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여 주는 ‘지도’이다.
1.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고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일에 대한 기준이라는 이 원칙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 마 1:23, 딤후 4:22, 갈 6:18, 시 27:4, 8, 51:11.
 2. 주님의 임재 곧 주님의 미소가 통제하는 원칙이다. 우리는 자신이 직접 얻은 주님의 임재에 의해 지켜지고, 다스림받고, 통제받고, 안내받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 시 27:8, 80:3, 7, 17-19.
 3.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을 대표하는 요셉은 주님의 임재를 누렸으며, 주님의 임재와 함께 주님의 권위와 번성과 축복을 누렸다 — 창 39:2-5, 21, 행 7:9.
 4.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매우 가까웠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다 — 출 33:11.
 5.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눈에서 표현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 고후 2:10.
 6. “젊었을 때 나는 이기고, 승리하고, 거룩해지고, 영적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도 통하지 않았으며 … 주님의 임재 외에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 곧 모든 것이다.” — 여호수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61-62쪽.
- G. 신약 전체가 임마누엘이고, 지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이 위대한 임마누엘의 일부이다. 신약은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사람으로 시작하여,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인 위대한 하나님-사람 곧 새 예루살렘으로 끝마친다 — 마 1:23, 고전 6:17, 행 9:4, 딤후 3:15-16, 계 21:3, 22, 겔 48:35.

메시지 4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성경: 마 28:19, 고전 15:45, 고후 3:17, 13:14

I.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가장 분명한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A. ‘이름 안으로’는 인격을 가리킨다.

1. 침례 받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인격 안으로, 다시 말하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2.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안으로’라는 말은 로마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와 같이 연결을 가리킨다.
3.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삼일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이다.
4.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신성한 삼일성을 위한 하나의 이름이 있다.
 - a.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 b. 믿는 이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B. 하나님은 셋-하나이시다 — 고후 13:14.

1.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세 위격,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다.
2. 이 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언급하셨을 때, 이 ‘이름’은 원문에서 단수이다.
3.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셋이시지만 이름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4. 세 위격을 위한 한 이름은 참으로 비밀스러우며, 하나님께서 셋-하나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5. 이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셋을 포함한다.
6.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계신다.

II.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써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받았다.

- A.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신 명령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하신 것이다. 부활은 삼일 하나님께서 거치신 과정의 완결이었다.
- B. 삼일 하나님은 육체 되심으로 시작하여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포함하고 부활로 완결되는 과정을 통과하셨다.
- C.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 고전 15:45, 고후 3:17.
- D. 이 영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삼일성 안으로 침례 받을 수 있게 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 E. 삼일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완결되신 영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1. 이것은 아버지의 풍성 안으로, 아들의 풍성 안으로, 그 영의 풍성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2. 침례 받은 이들로써 우리는 이제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아들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 영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 F.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분과의 비밀한 연결 안에 놓여져 하나님의 온 존재를 우리 존재 안으로 취하는 것이다.

Ⅲ.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중심이시다 — 고후 13:14.

A. '과정을 거치신'이라는 말은 삼일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주요 단계들을 가리킨다.

1. 하나님은 육체가 되시기 전에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어 신성한 본성만 있으시고 인간 본성은 없으셨지만,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셨다.
2. 요한계시록에서 삼일 하나님은 신성, 인성, 인간 생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 능력 있는 부활, 초월하는 승천을 포함하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 계 1:4-5.

B.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그 영이시다 — 계 22:17상, 요 7:39.

1.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의 여러 칭호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총합이자 총체이시다 — 마 3:16, 10:20, 눅 1:35, 4:18, 롬 8:9, 갈 4:6.
2.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복이시다 — 갈 3:14.

C. 요한계시록에서 삼일 하나님은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시자 건축되신 하나님이시다 — 계 21:18-19상, 21.

1. 성전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데, 새 예루살렘은 태초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 창 1:1, 계 21:10.
 - a. 유일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 한 성으로 확대되시고 확장되신다.
 - b.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셨다 — 계 21:10.
 - c.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어지셨다 — 계 21:18-19상, 21상.
2. 새 예루살렘이 되신 하나님은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시자 건축되신 하나님이시다 — 삼하 7:12, 14상, 마 16:18, 엡 3:17.
 - a.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근원과 요소와 본질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신다 — 엡 3:17.
 - b.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는 그분의 갈망을 이루고 계신다. 결국 이러한 건축의 결과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 계 21:2, 10.

D.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위한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완결된 계시를 본다 — 계 22:1-2, 7:17상, 21:6하, 요 4:14하.

1. 신성한 분배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 고후 13:14.
2. 신성한 분배에 있어서 아버지는 원천이시고, 아들은 샘이시며, 그 영은 흐름이시다.

메시지 5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성경: 창 1:26, 31-2:2, 마 11:28-30, 출 31:12-17

- I.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 마 11:28-30.
- A. 여기에서 수고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킨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 B. 주님은 아버지의 길을 인정하시고 신성한 경륜을 선언하시면서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신 후에(마 11:25-27), 이런 사람들을 그분께로 와 안식하라고 부르셨다.
- C.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킨다.
- D.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의무에 규제받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
- E.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다(요 4:34, 5:30, 6:38).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다(마 26:39, 42).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1. 믿는 이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인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수고함으로써 그들의 영 안에서 주님을 복사한다 — 마 11:29상, 벰전 2:21.
 2. 평생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신 주님은 그분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 빌 2:5-11, 히 5:7-9.
 3.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시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하나님으로 지극히 만족하신 주님께 배워야 한다.
 4.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히 13:20-21).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빌 2:13).
- F. 온유하다 혹은 온화하다는 것은 반대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겸허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모든 반대 가운데서도 온유하셨으며, 모든 배척 가운데서도 마음이 겸허하셨다.
- G.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셨다.
- H.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만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이다.
- I. 우리는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에 의해서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운다 — 엡 4:20-21, 벰전 2:21.
- J.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멍에는 편하여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

- K. ‘편하고’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용도에 꼭 알맞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렵고, 엄하고, 날카롭고, 괴롭고’와 대조되는 ‘좋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편하고, 유쾌하고’를 의미한다.
- L. 우리가 주님의 명에(아버지의 뜻)를 메고 그분께 배운다면,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명에는 이와 같다. 즉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누림이다.

II.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관한 긴 기록 이후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반복해서 말한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안식의 실재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완성과 안식과 평온과 완전한 만족이시다 — 히 4:7-9, 사 30:15장.

- A.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명령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삽입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건축자들 곧 일꾼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어떻게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셨음을 가리킨다.
- B.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줄만 알고 주님과 함께 안식할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신성한 원칙에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1.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완성하시고 만족하셨으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으므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정복되도록 그분의 권위가 행사되려는 참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안식하실 수 있다 — 창 1:26, 31-2:2.
 2. 그 후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기념되었다(출 20:8-11). 하나님께 일곱째 날이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었다.
 3. 하나님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사람은 창조된 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4. 사람은 먼저 일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비교 마 11:28-30).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막 2:27).
- C. 출애굽기 31장 17절은 “이는 여호와가 육 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1. 안식일은 하나님께 안식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었다.
 2. 하나님은 창조의 일이 완성된 후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 곧 하늘들과 땅과 모든 생물,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시며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 창 1:31.
 3.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 상쾌해지셨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였다 — 창 1:26, 2:7, 비교 요 4:31-34.
 4.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독신’이셨다(비교 창 2:18, 22).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표현함으로 그분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셨다(고후 11:2, 엡 5:25). 영원 미래에 하나님은 한 아내, 곧 어린양의 아내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얻으실 것이다(계 21:9-10).
 5. 사람은 상쾌하게 하는 음료와 같이 하나님의 목마름을 풀어 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을 그분의 동반자로 얻으셨다.
 6. 하나님께 일곱째 날은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반자인 사람에게에는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 첫째 날이었다. 즉 사람의 첫째 날은 누림의 날이었다.

- D. 우리가 누림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신성한 원칙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누림을 갖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린 후에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1.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갖는 법,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법,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통해 성취하신 것을 누린다.
 2.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그 영으로 채워졌는데, 이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그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포도주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 행 2:4상, 12-13.
 3. 사실상 그들은 하늘에 속한 포도주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누림으로 채워진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오순절은 여덟째 주의 첫째 날이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과 관련해서 우리는 첫째 날의 원칙을 본다.
 4. 이것은 하나님께는 일하고 안식하는 문제이지만, 사람에게는 안식하고 일하는 문제이다.
- E.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 예표된,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일하기 위한 힘과 수고하기 위한 에너지가 되실 것이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의 누림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지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2.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로는 속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 곧 속을 채워 주시는 영에 의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시를 가졌고, 그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되었다 — 행 2:14.
 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표시를 지니고 나서 우리를 채우신 바로 그분과 함께 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들로써 일해야 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주님이 말씀을 공급하기 위한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시라는 표시를 지니기를 힘써야 한다 — 고후 13:3, 행 6:4.
- F.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한 영원한 계약 혹은 언약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서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그분과의 하나 안에서 일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 확신시켜 드리는 것이다 — 출 31:16.
1. 주님을 마시고 먹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누리지 않은 채 우리 스스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비교 고전 12:13, 요 6:57.
 2. 베드로는 오순절 날 말씀을 전할 때에 내적으로 예수님께 참여하면서 그분을 마시고 먹고 있었다.
- G. 안식일은 또한 거룩하게 되는 문제이다(출 31:13). 우리는 주님을 누린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하나 됨으로 일할 때,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된다. 즉 속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육체에 속하고 타고난 모든 것을 대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적셔진다.
- H.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누리지 않고,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은 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봉사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고 몸 안에서의 교통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출 31:14-15).

- I. 하나님의 거처와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를 한 가지, 곧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상쾌하게 되시는 안식일로 이끈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성막 안에 있으며, 성막은 우리를 안식으로, 곧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에 대한 누림으로 이끈다!
- J.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주님의 일을 예표하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을 누림으로 시작해야 하고, 틈틈이 하나님을 누려서 상쾌해짐으로 건축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내적인 안식이신 그리스도로 안식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메시지 6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분이신 그리스도

성경: 마 7:29, 21:24, 눅 5:24, 롬 9:21-22, 히 13:17

I. 우리는 '권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 마 7:29.

- A. '권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는 '명령하고 결정을 내리며 순종하게 하는 힘이나 권리로서, 종종 권력 있는 지위나 전문성에서 비롯된다'.
- B. 성경에서 '권위'는 '권력을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유래하고 비롯된다'.

II.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시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 롬 9:21-22.

- A.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만 하나님의 일들을 대표한다 — 마 21:24, 눅 5:24.
- B. 하나님의 권위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다.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서부터 나온다 — 계 22:1.
- C. 영적 권위, 지위적 권위, 통치적 권위 등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 고후 10:8, 13:10, 요 19:10-11, 창 9:6.
- D.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질 때 하나님 자신을 만진다 — 사 6:1-5.
 - 1.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 — 암 4:12.
 - 2.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다.
- E.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권위를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 행 9:5, 마 11:25.
- F. 권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외적인 가르침보다는 내적인 계시에 의해서이다 — 행 22:6-16.
- G.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권위가 되신다. 다른 모든 권위자들, 곧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 권위자들, 대표 권위자들은 간접적인 권위이다 — 단 4:32, 34-37.
 - 1.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때에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표 권위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다 — 마 28:18, 히 13:17, 벰전 5:5.
 - 2.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복종할 뿐 아니라 모든 대표 권위자에게도 복종하기를 요구하신다 — 롬 13:1-7, 고후 10:8, 13:10, 히 13:17.
 - 3. 하나님의 간접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에 복종할 수 없다.
 - 4.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접적인 권위, 곧 대표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 H. 우리는 모두 권위를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그분의 대표 권위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 사 37:16, 빌 2:12, 히 13:17.

III.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유일한 쟁점은 권위에 관한 것이다 — 행 26:18, 골 1:13.

- A. 반역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이다.
 - 1. 사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이었으나, 교만으로 인해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자신의 왕국을 세웠다 — 사 14:12-14, 겔 28:2-19, 마 12:26.
 - 2.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폐하였다 — 창 3:1-6, 11:1-9.

- B. 비록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지만, 하나님은 이 반역이 계속되도록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 계 11:15.
- C. 이 우주 안에서의 다툼의 핵심은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계 4:2-3.
 - 1. 우리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사탄과 싸워야 한다 — 행 17:24, 30.
 - 2.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 마 11:25.
- D. 반역이라는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심각한 죄이다 — 삼상 15:23.

IV. 권위를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대표 권위자)에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 A. 그는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 마 8:8-9.
- B. 그는 자신 안에 아무 권위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마 28:18, 고후 10:8, 13:10.
- C.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 엡 1:9, 5:17.
- D. 그는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마 16:24.
- E. 그는 주님과 하나이며 주님과 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통 안에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 고전 6:17, 1:9, 요일 1:3.
- F. 그는 주관적이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느낌에 따라 행하지 않아야 한다 — 고후 3:5.
- G. 그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고 은혜로워야 한다 — 눅 6:35, 비교 롬 5:15-16, 고전 2:12.
- H. 그는 부활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 고후 1:9, 4:14.
- I.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위치를 취해야 한다 — 민 14:5, 16:3-4, 22, 45, 마 11:29, 롬 12:16, 눅 14:7-11, 벰전 5:5-6.
- J. 그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 출 16:7, 민 14:2, 5, 9, 27, 마 6:14-15, 고전 4:6-13.
- K. 그는 자신이 역량이 없고 자격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 출 3:11, 4:6-7, 10, 고후 3:5, 고전 15:10.
- L. 그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민 20:2-13, 고후 5:18, 20, 엡 6:20.

V. 가장 중요한 기도와 가장 영적인 기도는 권위의 기도이다 — 마 18:18, 막 11:20-24.

- A. 권위의 기도는 권위에 근거를 둔 명령이다 — 사 45:11, 막 11:20-24.
 - 1. 권위의 기도는 명령하는 기도이다 — 사 45:11.
 - 2.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있고 가치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권위 있는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막 11:23.
- B. 권위의 기도는 두 방면, 곧 묶는 방면과 푸는 방면이 있다 — 마 18:18.
 - 1. 평범한 기도는 하나님께 묶으시고 푸시기를 요청하는 기도이다.
 - 2. 권위를 가진 기도는 우리가 권위를 행사함으로 묶고 푸는 기도이다.
- C.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산'을 향한 것이다 — 막 11:23.
 - 1. 권위를 가진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 달라고 구하기보다, 제거해야 하는 문제들과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집행하고 적용한다 — 막 11:23.
 - 2. 권위를 가진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지 않는다. 그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문제들을 처리한다 — 출 14:15-27.
 - 3. 이기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보좌의 권위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며 산에게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 계 11:15, 12:10.
- D. 교회는 권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음부를 다스린다 — 마 16:18.

1. 교회는 사탄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2. 교회는 기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모든 활동을 정복하고 기도를 통해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 — 눅 10:17-19, 마 18:18.
- E. 우리가 권위의 기도를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실지적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권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 — 사 45:11, 벰전 5:6, 계 22:1.
- F. 권위의 기도는 하늘이 그 출발점이고 땅이 그 종착점이다 — 아 4:8, 6:10, 엡 1:22-23, 2:6, 6:18.
1. 권위를 가진 기도는 하늘에서부터 땅을 향해 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하늘에 속한 위치에서 시작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 엡 2:6.
 2. 아래를 향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 서서, 권위를 가지고 사탄에게 명령하고 그의 모든 일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다 — 마 6:9-10.
- G. 기도의 위치는 승천이며, 기도의 권위 또한 승천이다. 승천 안에 있는 모든 기도는 권위의 기도이다 — 엡 2:6, 1:22-23.
1. 권위의 기도는 승천의 위치에 서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이다 — 사 45:11.
 2.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행정과 같을 것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의 집행일 것이다 — 계 8:3-5.
- H. 우리가 하늘의 위치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권위 있는 기도를 말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지점에 도달할 때, 우리는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 엡 2:5-6, 계 3:21, 비교 겔 1:26.
1. 이 시점에 우리의 기도는 권위의 기도일 뿐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리는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행정, 곧 하나님의 통치의 집행이 된다 — 롬 5:17, 21, 마 18:18, 계 8:3-5.
 2. 우리가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러한 기도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것이다 — 엡 1:10-11, 3:9-11.